

## 15장 아래로부터의 삶정치와 코뮌리즘 I

(1교시)

### ※ 학습목표

코뮌리즘이란 용어의 갱생을 위해 **사회주의와 코뮌리즘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 ▲ 새로운 코뮌리즘의 부활을 두 가지 전제

#### ① 사회주의 운동과의 단절

맑스에게서는 사회주의와 코뮌리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 맑스는 **초기** 저작에서 코뮌리즘을 자기 정체성으로 내세움.

맑스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와 논박을 벌였다.(그들의 공상성을 비판)

또한 청년 헤겔주의자들과의 대결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논적은 프루동(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회주의자).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적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맑스는 이것이 화폐의 기본적 본성을 무시한 처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비판함.

→ 1870년대 이후로 맑스는 사회주의를 전술적 목표 지점으로 사고

#### 사회주의자 = 맑스주의자?

→ 맑스는 사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자신의 활동을 개시했고 또 그 투쟁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코뮌리즘으로의 이행을 위한 한 단계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주의자를 닮아갔다.

이로 인해 이후의 맑스주의자들이 단지 '사회주의자'로서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코뮌리즘으로의 이행의 한 단계가 결코 아니다.**

자유주의에서 코뮌리즘에 이르는 사다리가 없는 것처럼, 사회주의에서 코뮌리즘에 이르는 사다리도 없다. 사다리는 오히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이것이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심적인 교훈

- 오늘날 우리에게 코뮌리즘이 가능하다면, 미래로서의 코뮌리즘이란 관념과 단절해야 한다.  
오늘날 내재하는 코뮌리즘의 현실화가 우리의 목표임.

#### ② 코뮌리즘은 미래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재하는 것'

20세기의 역사에서 공산주의는 대개 가능성(실재성에 대립)으로 이해되어 옴.

→ 자본주의로부터의 단절적 가능성으로 혹은 사회주의로부터의 연속적 가능성으로 이해

맑스에게서 ‘유령으로서의 코뮌리즘’은 미래에나 실재하게 될 비실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유럽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재하는 코뮌리즘.

즉 ‘선언을 통해 드러남’(Manifesto)으로써 현실화될 하나의 실재하는 잠재력(virtuality),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재하는 잠재적 관계이자 그것의 힘이다.

그것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권형태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봉인되어 있지만 그것을 부단히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감성적이고 실천적이며 혁명적인 문제 제기의 힘이다.

그것은 이들 주권적 동일성으로 수렴되어지면서도 그것들을 뒤흔드는 실재하는 다양성이다.

- 코뮌리즘에 관한 맑스의 양가적 견해를 굳이 대립적인 것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현실적 규정과 잠재적 규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문제는 긴장된 두 가지 정의의 합축을 역사적 발전 속에서 찾는 것임.

- 파리 코뮌 이후 맑스는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국가 권력 장악이라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목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짐.

독일에서 사민당의 약진이 벌어지자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적 체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팽배

(2교시)

### ▲ 근대 혁명사에서 코뮤니즘 개념의 변화

#### ① 파리 코뮌의 패배 → 맑스적 코뮤니즘 개념이 급격하게 쇠퇴함

맑스는 코뮌 경험을 통해 1948년 혁명 당시 자신이 가졌던 코뮤니즘관을 자기 비판적으로 정정했다.

※ 참고자료 『공산주의당 선언』 1872년 독일어판 서문

“2월 혁명의 실천적 경험 및 더 나아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처음으로 2개월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파리 코뮌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강령은 몇몇 군데에서 오늘날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맑스는 1870년의 코뮌 봉기의 경험으로부터

“코뮌은 ‘노동자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라는 결론을 도출

#### ② 기존의 국가기구 장악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맑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즉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감.

사회주의 혁명은 조직된 사회주의자들 및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기존 국가권력의 장악과 동일시 되기에 이르렀다.

1916년까지 제2인터내셔널 내부에서의 다양한 논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기존 국가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라는 방법 문제를 둘러싼 것에 그침

#### ③ 레닌의 『국가와 혁명』

→ 기존 국가기관의 파괴와 코뮌적 권력의 수립이라는 파리 코뮌적 코뮤니즘관의 만회

그러나 레닌 자신에 의해 다시 부정됨.

#### ③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

코뮤니즘의 과도적 형태로 사회주의를 사고했던 전통적 맑스주의 관점이 ‘일국에서 완성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것은 코뮤니즘의 문제를 사회주의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시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장애에 부딪혔던 기술적 생산력의 해방으로 이해되면서 코뮤니즘의 문제의식은 통째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속에 봉인되었다.

### ▲ 코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열망- 이탈리아의 오페라이스모operaismo

1968년 5월 혁명 이후 이탈리아의 오페라이스모는 **코뮌리즘**을 국가나 노동이 아니라 **노동 거부 및 아래로부터의 계급구성**과 연결짓는 **혁신적 개념**을 발전시킴. 이것은 맑스의 초기 저작과 맑스의 자본론 플랜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산당 없는 맑스주의적 실천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남.

전통적 맑스주의와 단절하며 새로운 맑스주의의 구축이 일어나게 됨. 프랑스의 경우에는 맑스주의를 버리는 사례가 나타나게 됨. 이는 **프랑스 공산당이 유지했던 스탈린주의와의 친근함에 대한 반발의 결과**임